



한우근 : 한국사학의 실증적 토대 확립

민 현 구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20세기 후반을 연구로 가득 채운 역사가

한우근(韓祐勳, 1915~1999)은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내내 치열하게 한국사를 연구하여 한국사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공헌한 역사가이다. 그는 학창 시절 대부분을 일제 시기에 보냈으나, 광복과 동시에 만학도로서 한국사학에 입문하여, 해방 이후에 배출된 첫 세대의 한국사학자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로지 학문의 외길만을 걸어 두드러진 업적을 내며 학자로 대성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사 가운데 특히 조선시대사의 연구에 치력하여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규장각(奎章閣) 속에 파묻힌 많은 자료를 발굴하여 조선사회의 중요한 국면들을 새로이 밝혀 내는 한편, 사료(史料) 정리와 역주(譯註) 작업을 통해 후학들을 위한 도움도 남겼다. 특히 그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완벽한 고증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학의 실증적 방법이 뿌리내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그는 생애를 통해 거센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굳센 의지와 담박한 처신으로 학구에 일관지(一以貫之)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20세기가 저물어 가던 무렵에 별세하여, 이제 겨우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의 생애와 학문은 뒷날 상당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리되

어야 할 터이지만, 이 글에서는 간략히 그 풍모와 업적을 일별하여 그를 되새기는 자그마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한국사학의 외길로 일관한 생애

한우근은 1915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조부로부터 한문을 배웠으나, 7세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근대의 교육 과정을 밟기 시작했으며, 일본제 5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대 서양사학과에 진학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평양고보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파급되어 그에 가담한 탓으로 그는 출교(黜敎) 처분을 당해 배재고보에 편입, 졸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가 서양사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물론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큰 때문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저항 의식 같은 것도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유난히 헤르만 헷세를 좋아했던 그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항거와 분노'의 상념을 지닌 채 선진된 서구 세계의 역사에 매력을 느껴 전공으로 정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학창 생활은 출학 처분, 질병, 신경 쇠약, 강제 징용 등으로 평탄치 못하였고, 뒷날 스스로 그것을 울분과 고뇌가 되풀이되는 서글픈 것이었다고 솔직한

바 있다.

1945년의 민족 해방은 그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징용에서 풀려난 그는 해방으로 새로이 개편된 경성대학 사학과에 편입하여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했던 것이다. 당초 역사학에 관심이 컸던 그는 해방된 조국의 역사, 즉 '제 나라 역사'를 새롭게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경성대에 있는 규장각이라는 한국사 자료의 보고(寶庫)도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30세가 넘는 노학생은 새로운 활력 속에서 한국사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1947년 8월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제1회 졸업생이 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학문의 길을 걷는 일은 매우 힘겨운 것이었다. 단신의 월남자였던 그는 대학의 합동 연구실을 '유일한 안식처'로 삼았던 적이 있고, 좌우의 대립 갈등 속에서 국대안(國大案) 파동을 헤쳐 나가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병도, 손진태 두 분 교수의 지도를 받고, 젊은 교수 이인영과 가까이 지내며 한국사학의 길을 충실히 걸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강사에 위촉되고,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 얼마 후 6·25 동란이 일어나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나, 부산의 피난 시절을 인내와 끈기로 견디어 냈다. 오히려 그는 전란 속에서 동학들과 역사학회를 결성하여 학문의 열정을 불태웠고, 결혼을 해서 안락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다.

그가 학자로서 인정된 위치에 서는 것은 1955년에 홍익대 교수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 대학 졸업 후 동성고, 부산고, 보성고 교사를 역임하며 서울대 강사로서 출강하는 틈새 속에서 연구할 시간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힘든 시절을 비로소 청산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 후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그의 입지는 더욱 굳어졌다. 이렇게 해서, 1981년 정년 퇴임 때까지 26년간 그의 교수 생활이 이어지는데, 이 시기는 그가 가장 왕성하게 학

술 활동을 벌이는 득의(得意)의 시절이었다고 하겠다.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대학 연구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논저를 저술하였고, 학회 대표, 연구소 소장, 대학원장으로서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많은 제자를 지도하여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는 교수 생활을 통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다. 밤늦게까지 그의 연구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휴일이나 명절에도 그는 어김없이 연구실을 지켰다. 무서운 집념으로 연구에 전념한 그는 이 기간 동안 논문 45편, 저서 8책, 편저 6책 등 많은 저작을 발표 간행하였다. 그의 논문은 대개 철저한 논증을 거쳐 수백 개의 주기가 달린 장편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앞에 제시한 논저는 질(質)이나 양(量)의 면에서 대단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은사 이병도가 회갑 때까지 31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점에 비추어 만학인 자신이 스승에게 뒤지지 않는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분발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에 임하였음을 토로한 바 있다. 학문에 대한 집착, 한국사학에 대한 사명감 속에서 그의 장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의 학회 및 연구소 활동은 학문의 권위를 확립하고, 한국사학을 진흥시킨다는 방향에 따라 전개되었다. 그는 진단학회 이사, 역사학회 대표 간사, 한국사연구회 대표 간사를 역임하며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에디터쉽의 확립에 진력하였다. 그는 또한 서울대 교수 재임 중 한국사의 연구 기반을 확충시킨다는 방향에 따라 국사학과의 분리를 추진하였고, 한국문화연구소가 설치된 후에는 초대 소장으로 10여 년 간 일하며 학술지 발간과 연구 총서 출판의 기틀을 세움으로써 한국사 내지 한국 문화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가 교수직에 있는 동안 4·19 학생 의거, 5·16 군사 혁명, 한·일회담 반대 운동, 유신 체제 출범 등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격동을 겪어야 했다. 그는 순수한 학자로서 연구실을 지키는 자세로 대처하며 오로지 한국사 연구에만 매달렸다. 그는 한국사가 사회의 주목을 끌고, 한국사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 서울대 대학원장에 피임되지만, 학자의 자세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정년 퇴임 후 1999년에 별세하기까지 18년간 여전히 적극적인 연구 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여태까지의 성과를 마무리짓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학술원 회원으로서 한양대 대우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 교수를 역임하며 강의와 연구를 이어갔고, 별세하기 1년 전까지 민족문화추진회의 강의를 계속 맡았다. 이 시기에 그는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본격적인 역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가운데 논문 10여 편, 저서 4책, 편저서 3책 등 많은 업적을 내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학자로서 외경스럽고 장엄한 최후를 마쳤다. 새로운 연구를 진행시켜 논문 집필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그는 온종일 작업에 매달린 끝에 저녁녘 심장마비로 급서했던 것이다.

평소 젊은이 못지 않게 건강했던 그가 급작스러이 세상을 떠난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애도했으나, 평생 학문의 외길만을 걸다가 한국사 연구에 순(殉)한 그의 최후는 후학들에게 깊은 감동과 불멸의 인상을 심어 주었다. 문체의 논문은 그 후 간행되어 그의 84세 때 유작(遺作)으로 저작 연보에 올랐다.

조선시대 중심의 방대한 저술과 정치(精緻)한 고증

한우근은 50여 년 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논저를 발표했다. 논문이 약 60편, 저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11책이요, 그 밖에 번역·편저에 해당하는 것이 10책 가량 된다. 저서 가운데에는 개설서 1책, 수

필·사론집 2책이 포함되고, 나머지 8책은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은 양적으로 매우 많은 것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결같이 알찬 내용을 지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한국사의 큰 흐름에 관심을 갖고 일찍부터 개설서를 내었고, 결정판으로 『한국통사』(1970년)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학의 방법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견해를 개진하여 그 내용을 사론집인 『민족사의 전망』(1997년)에 수록한 바 있다. 그는 한국사를 새로이 주체적으로 체계 있게 이해되 확고한 객관성에 입각하여 사회 구조 중심으로 살피려고 힘썼고, 한국사학은 고증 위주의 실증 사학 단계를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가치 체계 수립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국민적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히 역사를 목적적 도식적으로 단순화하고 인간 개아(個我)의 가치를 부정하는 유물 사관에 비판적이며, 민족의 우수성만을 내세워 배타적인 국수주의로 떨어지는 그릇된 민족 사관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자세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개설서의 저작이나 사론의 피력보다는 조선시대사에 대한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연구에 절대적으로 더 큰 힘을 쏟았고, 따라서 학문적인 공헌도 그 편에 커다란 비중이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 시대는 500년이 넘게 길고, 임진왜란 뒤의 후기는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시기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료가 전존(傳存)되고 있으며, 또한 19세기 후반의 개항을 기점으로 하여 말기는 근대로 간주되는 바, 역사의 전개가 복잡 다단하고 밀도가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사 연구자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및 근대를 독립된 전공의 시기로 정해 그 가운데 하나를 연구 영역으로 삼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그

는 이 세 시기를 망라하여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 직후 발표한 첫 논문은 천주교의 전래를 다룬 것이었는데, 뒤이어 대표적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滉)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정치·경제에 대한 사상과 그 시대적 배경으로 18세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는 뒤이어 윤증(尹拯), 윤휴(尹鑄), 정약용(丁若鏞) 등 새로운 인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한편, 기인(其人), 공인(貢人)과 같은 직역인(職役人)을 중심으로 상공업(商工業) 문제까지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규장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관계문헌집성」이란 자료집을 펴냈다. 그의 조선 후기사 연구는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1961년), 「성호 이익연구」(1980년), 「기인제연구」(1992년)와 같은 저서를 낳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거대한 사료의 숲을 헤치고 근본적 고찰의 길을 닦아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와 해체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는 동시에 침체와 분열의 이면에 있었던 사회적 변혁과 의식의 확대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는 1961년부터 1962년에 걸쳐 1년간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 교수로 체류하는 기회를 이용해 미국 각처에 있는 한국사 관련 사료를 조사 수집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근대까지로 연구의 시기를 넓혔다. 그리하여 개항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상인의 침투와 그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상업 구조의 변천을 구명하였고, 특히 경제 여러 부문에 걸친 일본인의 침투가 결국 동학농민봉기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동학농민봉기 자체를 구조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련의 연구는 『한국 개항기의 상업연구』(1971년),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1971년), 『동학농민봉기』(1976년) 등의 역저(力著)로 귀결되었던 바,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구사하여 한국 근대사의 큰 축(軸)을 해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충분한 자료

제시와 철저한 논증을 통해 많은 사례(事例)와 사실(史實)을 적출 해명하면서도 성격 규정이나 의미 부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중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조선시대 초기의 정치, 제도, 사상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표시했다.

조선의 건국과 직결되는 유불 교체에 관한 문제의식은 조선시대를 통해 유교 정치가 펼쳐져 철저히 척불책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불교가 종교로서 의연히 존립된다는 의문점으로 이어졌고, 조선 정치 제도, 통치 체제를 다룬 논문도 간간히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사 전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초기로부터 시작하여 근대까지를 통관하는 사상적 추세를 연구 과제로 상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년 퇴임 뒤의 집중적인 연구 정리 작업을 거쳐 『유교 정치와 불교』(1993년), 『조선시대사상사 연구논고』(1996년)의 간행으로 대개 마무리되었으나, 정치 체제에 관해서는 『역주 경국대전(이전)』(1986년)을 선보였을 뿐, 소원 제도(訴願制度)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연구서를 펴내려던 계획은 급작스러운 별세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의 책들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시책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정치의 실상을 면밀하게 규명하고, 사상사의 여러 국면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전기 내지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상에 대한 의견을 크게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귀중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그의 연구는 방대한 규모의 것이었고, 그 성과는 새로운 조선시대의 역사상을 세우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그는 한국사 학자로서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조선시대의 근본 사료를 제일 많이 섭렵한 존재일 터이고, 누구보다도 정치한 고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실증 사학의 모습을 가장 약여(躍如)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다.

실증 사학의 극복을 지향한 실증 사학의 대가

한우근은 한평생 학문 연구의 외길만을 걸었던 20세기 후반의 대표적 한국사학자였다. 그는 조선시대사를 폭넓게 연구하여 당대의 새로운 역사상을 세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산적(山積)한 사료들을 정리·섭렵하고, 정치한 고증을 거쳐 독창적인 성과에 도달하는 그의 견실한 연구 방법은 한국사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한국 실증 사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그 극복을 지향하였던 실증 사학의 대가였다고 하겠다. 역사의 격랑을 헤치고 한국사학에 종사하면서 바깥일에 한눈 팔거나, 민족을 내세워 명리에

업매이는 일없이, 생명이 다하도록 오로지 연구에 온 힘을 바쳤던 그의 면모를 후학들은 좀처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민현구**

민현구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및 등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남대 교수, 국민대 교수, 진단학회장, 역사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신돈의 집권과 그 정치적 성격', '고려 후기의 권문 세족', '고려 중기 삼국 부흥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저서로는 '조선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고려편)』,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 등이 있다.